



길림성 '5.1' 연휴 문화관광시장 열기 후끈



최근, 장춘시 북경대가서(北京大街西) 역사문화거리가 화려하게 탈바꿈했다. 장춘시 첫 역사문화거리인 북경대가서 역사문화거리는 4.5만평방미터의 범위내에 장춘 백년 절충주의(折衷主义) 건축 풍모를 완전하게 보존, 시민과 관광객들 속에서 인기 핫플레이스로 되고 있다. 사진은 현장의 거리 예술투어 공연의 한 장면이다.

따뜻한 봄바람이 길림대지에 불어 오니 문화관광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다. 2025년 '5.1' 연휴 기간 길림성 문화관광시장은 성당위와 성정부 및 문화관광부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공급을 증가하고 경영방식을 혁신하며 충분히 선전하고 열정을 조성하며 안전을 보장하여 눈부신 '성적표'를 내놓았다. 은련상무회사의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전 성은 연인수로 1,964만 7,000명의 국내 관광객을 접대, 국내 관광객의 총 관광 비용은 184.8억 원이며 성의 관광객은 관광객수의 32%, 투숙한 관광객은 42%를 차지했으며 장춘, 길림, 연변 순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았다. 백산송수의 자연관광지로부터 일상의 정취가 피어오르는 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몰입감 넘치는 문화박물관으로부터 연극 공연이 펼쳐지는 문예무대에 이르기까지 길림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세시대 문화관광 융합의 생동한 한페지를 써내려가고 있다.

산수인문의 아름다운 화폭

5월의 길림은 곳곳에서 왕성한 생기가 솟아올라고 있다. 전 성의 여러 큰 관광지들은 봄을 주제로 자연경관과 특색 체험을 깊이있게 융합시켜 전통 관광지들은 새롭게 빛나고 신형 경영방식은 하이라이트를 쏟아내고 있다. 차간호 호수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체험, 호수가 달리기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지 접대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장백산기슭의 이도백하 명진(名镇) 관광지는 삼림 호흡, 느린 생활의 생태건강양생을 특색으로 관광객 접대량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장춘시 정월담관광지는 5월 2일 접대량이 같은 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음악파티, 삼림걷기 등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았다. 길림시 송화호관광지는 '호광산색 + 미식향연 + 야외운동' 세트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접대량이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했다. 문화유산자와 생태바탕색이 서로 어울려 빛났다. 사평전역기념관은 홀로그램(全息投影) 기술을 통해 역사

장면을 재현했는데 접대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고구려문물 고적관광지, 압록강국문관광지 등 변경 문화 랜드마크는 그 독특한 역사와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접대량이 각각 29.7%, 25.6% 증가되어 관광객들이 역사를 느끼고 변경의 매력을 만끽하는 장구로 되었다. 장백산 화미명승지관광휴양지에서는 일련의 가족휴가 행사가 광범한 환영을 받았는데 접대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2%나 증가했다. 이 밖에 길림시 복산관광지, 라법산 국가삼림공원, 북대호스키휴양지와 사평시 예허나라성, 료원시 남조산록향(南照山麓) 문화관광산업단지, 통화시 양정우렵사등원, 장백산 만달국 제휴양지, 백성시 대안능강만(大安嫩江湾) 관광지, 차간호트(查干浩特) 관광지 등 성내 각지 관광지의 관광객 접대 수량은 모두 정도부동하게 증가했다.

활력 분출한 문화관광거리

밤장막이 드리우자 길림의 역사문화거리들은 '불야성'으로 변신하여 등불이 찬란한 가운데 일상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장춘시 북경대가서(北京大街西) 역사문화거리의 승격을 거쳐 국제전시, 예술순회, 커피장터 등 행사의 다채로운 조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연휴 기간 연인수로 57만 1,000명의 관광객을 접대하고 157.9만원의 영업수입을 올리게 된 데는 로장춘의 '혼'과 새로운 조류의 '멋'의 완벽한 융합이 한몫했다. 장춘시 계림로 보행거리, '저유산'(这有山) 등 신규 상권은 지속적으

폭발적 인기 누린 문화박람회장

연휴 기간, 길림성 문화박람회 장소들은 '문화융성'으로 변신했는데 도합 42개 특색전시, 65개 사회교양행사를 내놓았으며 22개 박물관이 개방시간을 연장했다. 길림성박물관의 교육과정, 연구행사 및 청년절 특별장은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 체험에서 역사의 온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위만황궁박물관은 매일 4차례의 공익강연을 조직했는데 관광객들은 해설원을 따라 걸으며 역사 변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길림시박물관은 '핫플레이스'로 되었고 무형문화유산장터에서는 전통기예가 재현되었으며 운석전시에서는 운석 탐색 열풍이 일어나 접대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했다. 길림시문묘박물관의 '6가지 기예 체험'이 가정들의 앞다툼 참여를 불러왔는데 아이들은 양궁 등 전통놀이에서 전통문화의 매력을 만끽, 접대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연변박물관의 무형문화유산 전시, 전통놀이 체험은 관중들로 하여금 조선족 문화를 직접에서 이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 성 각급 공공도서관, 문화관(역)은 399차례의 대중문화행사를 전개하여 문화해민의 봄바람이 도시와 농촌의 구석구석에까지 불게 했다.

밤하늘 밝힌 시청각 향연

이번 연휴 기간에 길림성이 조직한 133회의 문예공연은 관광객들에게 시청각 향연을 선사했다. 장춘연화도영화텔레비죤방송센터문화원은 매일 4개 시간대에 대형 실경극을 펼쳤다. <향연향연>은 전쟁년대사를 재현하고 <연화선자전>은 신화와 전설을 연출하며 관중들로 하여금 수막과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무대에 빠져들게 했다. 민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춘영화극대무대의 아동극 <영웅의 우주위기>, <울트라와 빛-기적의 재현>은 부모와 아이들로 하여금 웃음 속에서 연휴를 즐기게 했다.

길림성도리매(桃李梅)대극장의 2인전 특별공연, 장영음악청의 교향음악회, 연변로동자문화궁의 조선족가무공연 등은 대히 초반일을 이루었다. 장춘시 정월담관광지, 길림시 송화호관광지, 백성시 대안능강만관광지, 길림시 나미산곡관광휴양지에서는 관광지와의 연애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가운데 삼림음악회, 수상조명쇼 등 활동으로 관광객들이 자연과 공연의 이중 풍경을 만끽하게 했다.

따뜻한 봉사 안전한 관광

연휴 기간 장춘시, 길림시, 통화시, 송원시, 매하구시 등 관광 인기 지역의 호텔 민박 입주들은 고공행진을 유지했다. 전 성 각지에서는 관광객들이 편히 놀고 마음놓고 투숙하고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장춘시는 7개 문화관광 전용선을 개통하고 시내 주요 관광지와 상권을 직통 또는 직렬로 연결했다. 길림시는 시내 68개 로선의 시내배스를 무료로 운행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절찬을 받았다. 송원시는 '원터치 송원 관광' 위챗 애플릿을 개통하여 한번 클릭으로 스마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관광지를 양보하고 장소를 양보하며 도로를 양보하고 주차공간을 양보'하는 4가지 양보 행동을 펼친 매하구시의 친절한 서비스는 관광객들의 위챗 모넬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전 성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22개 직류충전기기가 수시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신에너지차 주자들의 '충전의 초조함'을 해소해주었다. 안전한 문화관광 발전의 최저선이다. 전 성 문화관광부문은 앞당겨 조치하고 다급별 련동 감독지도, 우환조사정돈개선 및 실시간 응급대응 기제를 통해 전방위적인 안전방어선을 구축했다. 각지의 관광지, 거리 및 교통부문에 협동하고 협력하여 관광객들이 합리적으로 일정을 계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심하고 편안하게 나들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매스컴과 인터넷을 달군 길림

이번 '5.1' 연휴 기간, 길림 문화관광의 '존재감'은 스크린과 인터넷을 후끈 달구었다. 길림성문화관광청이 만든 '밝은 달이 놀아주다' 프로는 선후로 당국장, 마적화 등 10여명의 로예술가들을 초청하여 2기로 나누어 길림 특색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몰입식으로 체험하게 했다. '밝은 달이 놀아주다', '길림을 사랑한다' 등 화제의 열독량은 30억건을 넘었고 '86판 저팔계와 여러 엘리트 배우들이 장춘을 찾다', '5.1 북경대가서 관광여행' 등 여러 화제가 본지 인기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이 밖에 CCTV 뉴스, 신화매일통신, 인민넷, <경제일보>, <중국일보> 등 중앙 매체들이 여러차례 길림에 초점을 맞추고 장춘, 연변, 백성 등지의 문화관광 상황을 보도했다. 비록 연휴는 끝났지만 길림 문화관광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연휴에 사람들의 눈에 비쳐진 것은 수자의 성장에 그치지 않은 길림의 '좋은 자원', 더우기는 문화관광의 '좋은 체험'이었다. 산수의 시적 감성에서부터 거리와 골목의 불꽃놀이까지, 오랜 역사의 문화 탐구에서부터 현대 무대의 예술 몰입에 이르기까지, '사계절 모두 경치가 있고 전역을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길림은 두 팔을 벌려 팔방에서 온 손님들을 반기고 있다.

/ 길림일보

화룡시

2025 진달래 문화관광 시즌 성황리에



화룡시 2025 진달래 문화관광 시즌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 당일, 축제 현장을 찾은 여러 민족 관광객들은 화려한 꽃의 향연을 함께 즐기며 명절의 한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진달래가 만발해 시내의 찬란한 장을 펼쳐'를 주제로 화룡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양상과 성과를 충분히 체현함으로써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개방적 협력과 상생발전을 조력했다. 진달래촌당지부 서기 오진호는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을 열정적으로 환영하면서 화룡시 2025 진달래 문화관광 시즌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어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꿈을 함께 구축하자'를 주제로 한 길림성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문예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뜻깊은 문화 향연을 선사했다. 축제 기간 '나의 고향 나의 노래' 진달래 사계절 마을 노래 행사, 무형문화유산 전시, 조선족 민속 퍼레이드, 조선족 전통가옥문화전, '8개 진 특선' 농산물 전시, 길림 브랜드 특산물과 화룡 진달래 공급판매시장, 로봇문화체험전,

트렌디×전통 커피문화 플래시몹전, 청년연합 창의작품 발표, '우리 가족 봄나들이' 체험학습, 펫파라다이스·가족놀이 한마당(萌宠乐园·亲子游艺嘉年华) 축제 음식 체험, 화룡시 진달래축제 로인게이트볼경기 초청전, '내 마음의 고향' 중소학생 우수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은 여러 민족이 어우러진 문화의 매력과 독특한 민족정취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시즌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를 주선으로 '정부가 무대를 마련하고 기업이 공연하는' 시장화 운영 모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 축제'의 혁신적 교류 플랫폼을 구축했다. 동시에 생동감 넘치는 전통 공예 시연과 몰입형 민속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봄은 해변 강 비추네' 문화관광 명품 브랜드를 재탄생시키며 봄나들이 산업과 꽃감상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나아가 화려한 꽃향연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여러 민족간의 교류와 화합을 증진하는 문화의 장을 조성하며 향촌진흥과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변경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을 모으고 있다. / 김영화기자

베일 벗은 해란명주탑, 연변 새 랜드마크로 우뚝

4월 30일, 해란명주탑이 베일을 벗고 정식으로 대외에 공개되었다. 해란강변에 우뚝 선 516미터 높이의 해란명주탑은 '과학기술 + 문화관광'이라는 복합적 개념으로 도시 스카이라인(天际线)을 재구성하며 연변 최초의 고공체험형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자리매김했다. 연결기상탑의 승격 버전으로 탄생한 이 대상은 1년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능적 변신을 이루었다. 기상관측이라는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기부양 지구 장치와 시공간 이동 우주선 등 혁신적 전시물을 도입해 전통적인 기상과학교육을 몰입형 체험으로 전환했다. 특히 고공 유리데크(玻璃栈道)와 탑 최상층의 '해란의 눈' 전망대를 조성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류례없는 고공관광 클러스터(矩阵)를 완성했다. 해란명주탑은 문화전시, 관광레저, 상업이 융합된 복합 문화관광 공간으로 운영된다. 1층은 영상기술로 연변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미디어전시관, 2층은 조선족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연변음식구역, 5층은 지역 특색 문화창의 제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동심공예품마켓(同心集市),

8층은 자연과 과학의 신비를 탐구하는 기상박물관, 30층은 사계절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고공전망대, 31층은 연변 특유의 커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클라우즈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탑 꼭대기의 '해란의 눈' 전망대에서는 연길시와 룡정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을뿐더러 스릴을 즐기는 관광객을 위한 번지점프와 고공그네 시설도 마련되어있다. "시공간 이동 캡슐에서 공통 멸종의 기후변화를 체험하다가 잠시 후 커피를 마시며 두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게 되다니... 이 초현실적인 조합이 참 독특하네요." 시민 장선생은 첫 체험자로서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결합된 디자인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면서 감개무량했다. 료해에 따르면 해당 대상은 연간 다양한 테마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여름방학 시즌 국제조명예술 축제, 국경절 공공교향음악회 등 크로스오버(跨界企划) 기획을 구상중이며 더불어 공룡은천호텔 및 공룡왕국과의 연계를 통해 연변 문화관광의 핵심 체험권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연변지역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김영화기자